

『켄타우로스』적인

비평의 심연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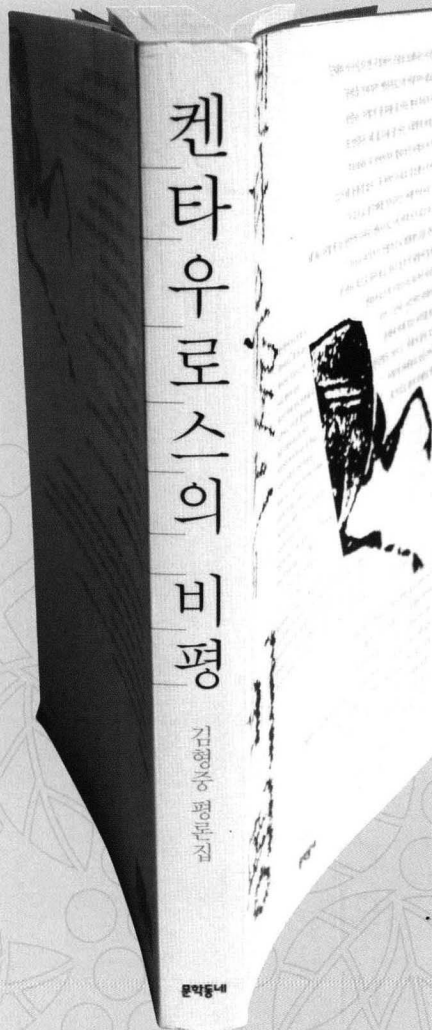
벤 야민이 “과거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은밀한 기록”이라고 했을 때, 당장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과거’ ‘구원’ ‘은밀’ ‘기록’이라는 단어들의 조합 때문에 놀라게 된다.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들이 서로 엮여 있는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로 난해하고 어려운 해석의 구멍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가 은밀한 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 안에 존재하는 역사란 다큐멘터리가 아니며, 사건 또한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구되기를 기다리는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현재의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이란 뒤틀린 형상으로 재해석 될 수 있는 지극히 물질적인 것이란 말이다. 그 시간 속에서 개념은 해체되고 의미의 과장은 커지며 해석의 결과물은 다양해지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과거가 현재의 시간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연속적인 시간의 고리를 자르고 소화되지 않은 채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게워내는 순간을 향해 예리한 비평의 촉수를 뻗는 비평가가 바로 김형중이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비평가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과거를 구원하려는’ 미적 자의식을 통해 텍스트와 사회를 연결시키고, 이를 평가하는데 노련한 자질을 발휘해 왔다. 스스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켄타우로스에 빗대어 자신의 비평적 자의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는 텍스트 안과 밖의 소통 가능성을 찾으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김형중의 비평은 1980년대 역사적, 문학적 상흔과 1990년대 이후 변하기 시작한 문화적 징후에 민감하며, 이를 기반으로 작가와 텍스트에 남겨져 있는 화인(火印)을 찾는다. 쉽게 마르크스나 데리다를 호명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자기 감각으로 가식적인 총체성으로 거부하며, 봉합을 향해 치닫는 서사를 경멸하는 그의 시선은, 탈정치적인 방식으로, 지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평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루카치와 모레티의 소설 이론과 데리다, 푸코, 들뢰즈, 네그리의 비평이론에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의 흔적이다. 정확히 그는 마르크스의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르크스의 유령을 인식론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텍스트들은 철저하게 1990년대 대표작들이다. 문화 형성소설과 문화적 뎀디 소설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문화와 인간이 어떻게 우하는가에 대한 그의 성찰은 날렵하면서 진지하다.

김형중 비평에서 다루어지는 작가들은 백민석, 김연수, 김종광, 김경욱, 박성원, 정여문, 류소영, 성석제, 복거일, 김성동, 한동림, 박성원, 정영문, 송기원, 전경린, 서하진, 강영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가 이들의 글쓰기 비밀을 밝혀나가는 것은 방법론적인 죽음, 공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인물들이 숨기고 있는 ‘광기’에 있다. 그것이 주로 인물 분석에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물중심의 비평이 갖는 전략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와는 달리 철저하게 놓여진 상황 논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화석화된 ‘기억’을 흩어지게 하고 해체할 수 있다. 그가 문화자본주의 속에서 기념비화 되어 가는 기억에 민감한 것은 아직도 1980년 광주의 문제가 여전히 ‘살아 있는 기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그의 집착은 광주 태생이라는 자신의 생래적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절대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자의식에 기인한다. 그가 정찬의 소설을 평가하면서 “지금 ‘5월’의 사회학적 사실복원을 시도하거나, 그것의 역사적 위상을(진보사관에 입각하여)맥락화 하는 대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5월’에 끌어들이, 그것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117p)고 한 것에는 1980년대 문학적 지향점을 한 차원 더 다층적인 방식으로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죽음과 삶이라는 형이상학 속에서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으로 되살아나는 과거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인과관계의 연속성을 끊는다. 그리고 “일단 과거가 현재의 한 순간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과거와 뒤엉키고”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나 변주가 되고 과거 또한 현재와 유비적으로 나란히 재배열”(265p)되는 순간 속에서 현재의 의미를 반추하게 하는 것이



《켄타우로스의 비평》 김형중 지음 | 문학동네 | 432쪽 | 값 15,000원

이 글을 쓴 최성실은 <1950년대 한국 소설 비평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계간 <문학과 사회>에 <텍스트화한 역사, 떠 있는 텍스트 만들기>와 그의 의미 연색(양)을 발표하면서 평론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문학과 사회>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평론집 <육체, 비평의 주사위>가 있다.

다. 이를 통해 비평가 김형중은 그 '구조적 상동성'을 드러낸다. 그가 반복적으로 벤야민의 '역사철학체계'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시간의 중첩과 간섭을 통해 정치적으로 되살아나는 '기억'의 문제를 맥락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미적 자의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민석의 절대적인 경험과 문화적 댄디들의 알팍한 과시용 문화체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묻고 있으며, "인간성 따위를 무시하는 무정부적 야성상태에 대한 동경"을 문제삼기도 한다. 그가 90년대 소설이 백민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명명하는 것은 그의 소설에 아나키즘적 기질이 90년대 젊은 작가들의 외상을 감싸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1970년대 개발독재나 1980년대 폭압정치와 "모스크바에 몰아친 식품 속에서 1970년대생 작가 백민석은 아나키즘적 기질을, 김경옥은 인공낙원에 대한 영상을, 김연수는 문어체 인공직유"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1980년대 이후 광주를 불러내지 않고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이면을 직시하고, 떨어진 레닌의 목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마르크스 유령이 권력의 미시정치학과 끊임없이 부딪치는 점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김형중이 노련한 비유적 문체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더라도, 그 대목에서는 진지한 '생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권력과 지식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는 그의 비평은 남성적인 시각에서 해석된 작가의 작품 평가에서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소위 말하는 여성 소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글 속에서 다시 한번 화석화되어 가는 '지식의 기념비'를 확인한다. 전경린, 김인숙, 권지예, 은희경, 서하진, 이평체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을 공고히 하고 있는 소설과 평가에 대한 냉엄한 직시는 언제나 그렇듯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결코 행복하게 조우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거시권력과 미시권력 모두를 총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은 김형중 비평의 가장 큰 미덕이면서 동시에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그가 5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5월은 망월동 신묘역에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솟은 기념탑과 함께, 매년 5월이면 금남로 도청 앞 광장을 찌렁찌렁 울려대는 관습적인 기념식이며 문화 이벤트와 함께, 제3세계 지식인들을 대거 초청해서 벌이는 대대적인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딱딱하게 메마르고 굳은 채로 기록되고, 보관되고, 전시되는 데나 소용될 처지를 면하기 힘들 것만 같다. 5월은 확실히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105)라고 한 것은 동시대 다른 비평가들이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동안 김형중이 날린 핵심적인 발언이다. 그의 비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1980년대의 상징성을 넘마를 걸친 유령으로 만들어 우리 앞에 제시하고 이를 다시 똑바로 쳐다보라고 외친, 어쩌면 유일한 1990년대 이후 문학비평의 자산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그 유령이 끊임없이 출몰하는 한 김형중은 이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유령이 텍스트를 좀더 자유로이 읽을 수 없게 하고 단순한 상동구조에 발목을 잡아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유령에게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유령과 '놀면서' 시간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비평적 인공직유(?)를 유쾌하게 발현하면서 말이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떤 순간에 복수 시간대의 기억이, 혹은 두 시간의 계열체가 중첩되어 있다면 그 순간 누리게 되는 의미 또한 증폭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김형중 비평은, 시간의 중첩과 의미의 중첩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도 힘든 글쓰기의 여정을 채워나갈 것이다.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에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서 말이다. [문]